



화이트데이를 맞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서 'Sweet 화이트데이 특집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행사에서는 사랑선물세트를 2700원부터 최대 1만800원에 판매한다.

화이트데이 선물, 실속 있거나 튀거나

향수·액세서리 인기...5만~10만원선 백화점, 기획 선물세트·상품권 이벤트

화이트데이라고 달랑 사랑만 주는 것은 옛말. 연인들의 명절인 화이트데이는 불황 탓에 예전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의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점점 앞물려지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부담 없는 가격의 실속형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다.

12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따르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화이트데이 선물 패턴이 실속형으로 바뀌면서 유통업체들이 마케팅 방향을 '이색'과 '실속'에 맞춰 제품 라인업을 꾸미고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Sweet 화이트데이 특집전'을 진행한다. 다양한 기프트 패키지 세트를 선보이는 이번 특집전은 지난해

12월에 입점한 슈니발렌에서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선물세트를 기획,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화이트데이 파티를 준비하는 가족과 연인을 대상으로한 와인선물세트도 준비했다.

초콜릿과 사탕 등 전통적인 화이트데이 선물 물량은 줄이는 대신 화장품(향수),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 여성들이 선호하는 상품 물량을 작년보다 20%가량 늘렸다.

여성 고객들이 선물할 품목 1~2개를 직접 고르는 것과 달리 남성 고객은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함께 구성한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 자체조사결과 지난해 화이트데이 기간 가장 인기있었던 품목은 향수제품으로 약 40%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마트도 완제품 형태의 기획 상품을 지난해보다 30%가량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2013 White Day 선물 베스트' 행사와 이벤트를 연다.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주는 심플한 느낌의 귀걸이에서부터 목걸이, 향수, 시계, 핸드백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매력이다

기념일마다 여성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로 꼽히는 화장품 페스티벌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봄에 맞는 화사한 색감의 색조화장품과 화이트닝 선물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이밖에 14일 화이트데이 당일 총장로 우체국 앞에서 사랑과 상품권, 영화 티켓 등을 증정하는 '롯데백화점이 총장로에 찾아갑니다' 이벤트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불황형 소비가 계속됨에 따라 연인들 사이에도 꼭 필요한 선물을 센스있게 준비하는

것이 최근 데이(Day) 선물 트렌드"라며 "영업행사와 이벤트를 잘 체크해, 연인과 지인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한 사랑을 표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하는 화이트데이 선물로 사랑과 액세서리가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비용은 5만~10만원 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잔돌이·잔돈이 늘었다 소비자 60% "을 지출 줄여"

소비자 10명중 6명은 올해 지출 규모를 작년보다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애로 요인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소비를 작년 이맘때보다 줄였다는 응답이 57.0%로 나타났다.

소비를 늘렸다는 12.0%, 작년과 비슷하다는 31.0%였다.

작년과 비교해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소비 항목은 외식·숙박비(30.6%), 오락·문화비(24.1%), 의류비(15.8%), 가사제품(8.2%) 등의 순이었다. 지출을 늘린 항목은 식료품비(32.7%), 주거비(21.9%), 교육비(10.2%), 교통비(9.7%), 통신비(8.6%) 등이었다.

연남뉴스



저신용자에 담보 없이 대출

광주은행 '소액대출' 출시...최대 5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kjb희망모아소액대출'을 출시했다.

'kjb희망모아소액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과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5~10등급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기본 연 12%이며 매 3개월 단위 총연체임수가 5일 이하인 성실상환자에게는 분기당 0.2%의 이자가 감면돼 최저 9%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담보가 필요없는 전액 신용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는 상품으로 저신용 또는 저소득자라는 이유로 제2금융권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효용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내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먼지 막아라” 황사용품 판매 급증

마스크·손세정제 전년보다 40% 이상 늘어

1월 중순부터 미세먼지 스모그가 계속되고, 최근 황사가 발생하면서 마스크나 세정제 등 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위생용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이마트는 12일 최근 광주 5개 지점의 마스크 등 황사 관련 용품의 판매가 5.7%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스크 판매량은 전달에 비해 4.3% 늘었고 세정제는 10.2%가 증가했다.

또 편의점 CU는 지난 1~2월 마스크 판매량은 작년보다 44.5% 늘었으며 손세정제 40.2%, 구강청결제 38.

1%, 비누 30.6%, 물티슈 33.9%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 GS25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GS25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이 2주전에 비해 65.8% 늘어났다고 전했다. 가글 용품과 렌즈 세정액 매출도 같은 기간 각각 28.5%, 1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픈마켓에서도 황사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G마켓에서 황사가 섞인 공기를 정화해주는 공기청정기 제품은 최근 판

매량이 44% 증가했으며 손 세정제 등 세안용품 판매량도 42% 늘어났다.

옥션(www.auction.co.kr)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황사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60%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가 대표 인기상품으로, 같은 기간 관련 제품 판매량이 70% 이상 늘었고 유모차 덮개, 유아방토 등 자녀를 모래먼지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품도 인기가 높다. 사무실 등에 두고 관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군 중 하나이며 황사 먼지로 더러워진 유리창을 닦는 청소도구들도 덩달아 판매율이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SPA브랜드 수선은 '나몰라라'

'유니클로'·'GAP' 등 5곳 AS 센터도 없어

'유니클로' 등 수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가 국내 의류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사후처리(AS)는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입 브랜드는 공식 AS센터도 없는데다 사설 업체를 이용한 AS 접수마저 거부한다.

1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퀵서머리 서치'가 '유니클로', 'GAP', 'ZARA', 'H&M', '망고' 등 5개 수입 SPA 브랜드의 공식 AS센터 여부를 조사해보니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았다. 매장에서는 AS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브랜드는 제품 구매 시 '바지 길이 수선'만 해줄 뿐 다른 수선은 불가능했다. 옷을 입다가 실수를 저지거나 단추 등 소모품을 잃어버리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SPA는 고객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1~2주 만에 다품종 제품을 대량 공급해 유통까지 책임지는 '패스

트 패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유니클로', 'GAP', 'ZARA', 'H&M', '망고' 등 수입 브랜드가 대부분 의류 시장을 장악한다. 2011년 시장 규모만 1조 9000억원을 넘었고 연간 50% 이상 팽창했으나 AS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이번 조사로는 '유니클로', 'GAP', 'ZARA'가 사설 업체를 이용해 유상 수리를 했으나 'H&M'과 '망고'는 이마저도 없어 수선 팬 세탁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객이 돈을 내겠다고 해도 SPA 브랜드에서 지정한 사설 AS 업체를 이용하기 쉽지 않았다. 매장에서 사설업체 AS의 수선 가능 여부조차 안 내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설 AS업체에서 AS를 할 수 있다는 3곳의 9개 매장에 직접 문의해보니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한 곳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연남뉴스

맥스, 아사히 늘렸다 하이트진로, 국제맥주대회 '금상'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는 맥주 브랜드 맥스가 세계 3대 맥주 품평회 중 하나인 국제맥주대회(IBA 2013 : The International Brewing Awards 2013)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1886년 시작된 IB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품평회로, '맥주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맥스는 올해 처음 IBA에 출전해 참가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재호기자 lion@연남뉴스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3년 4월 15일(월) 13:00

- 접수기간**
 - 2012. 03. 18 ~ 03. 22 (1차 접수일)
 - 2013. 03. 25 ~ 03. 29 (미달시 2차 접수일)
- 접수방법**
 - 합평다이내스티CC 홈페이지(www.hpdynastycc.co.kr)
- 특 전**
 - 가. 신페리오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어제, 주말회원대우
 - 나. 메달리스트
 - 1년간 합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어제, 주말회원대우
 - 다. 신페리오준우승(1명)
 - 1년간 합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회원대우
- 주 최** | 합평다이내스티CC
- 주 관** | 61 광주일보
- 진 행** | KPGA정회원
- 후 원** | 전라남도, 합평군, 전남골프협회
- 문의전화** | 061-320-7700, 7777